

틱톡 미식달인들 연결서 맛의 뿌리 찾아

12월 11일, 틱톡과 연결시문화라 지오텔레비존방송및관광국의 공동 협력하에 ‘허끌파티’ 오프라인 살롱 및 연결 미식 탐구 행사가 개최되었다. 국내외의 30여명 틱톡 미식달인들이 조선족 특색의 음식과 문화 여행의 향연을 함께 즐겼다.

중국조선족민속원에서 틱톡 미식 달인들은 조선족 전통 복장을 갈아입고 사진을 남겼다. 그들은 리향단궁 중떡집에 들어가 중국조선족전통떡떡제작기에 무형문화유산 전승인 리향단의 지도하에 떡빚 만들기를 체험하면서 조선족 음식의 섬세함과 정교함을 감상했다.

애령감주집을 찾은 틱톡 미식달인들은 조선족감주제작기에 무형문화유산 전승인 안정금의 초청하에 여

러 맛의 감주를 맛보고 감주제작기에 대해 료해했다. 이어 그들은 민속원 소극장에서 〈연길인상〉 공연을 관람하며 조선족 문화의 전승에 대해 알아보고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의 매력을 느꼈다.

해란강돌술밥과 청향관에서 미식 달인들은 조선족 김치와 순대 만드는 법을 료해하고 직접 김치를 담그고 순대와 닭곰을 만들며 조선족 음식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느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이번 ‘허끌파티’ 오프라인 살롱 행사는 인터넷 달인들에게 넓고 심오한 조선족 음식문화를 깊게 리해시켰을 뿐만 아니라 연결문화관광산업의 홍보에도 새로운 플랫폼을 마련하였다.

/연길뉴스넷

전통 찰떡 만들기 체험하고 조선족 특색 미식 탐구



떡빚 만들기를 체험하고 있는 틱톡 미식달인

2024년 할빈시 조선족 새해맞이 친목행사 열려

할빈시 조선족 새해맞이 친목행사가 조선족 각계인사와 군중들이 참가한 가운데 12월 7일 할빈시금곡호텔에서 열렸다.

행사는 할빈시조선족사업촉진회의 주최와 흑룡강성조선족기업가협회, 중한국제혁신창업센터, 할빈시조선민족예술관, 흑룡강신문사, 흑룡강라지오텔레비존방송국 국제부, 할빈시 각 조선족 단위와 단체, 재할빈 한상회는 협조로 열렸다.

행사 시작에 앞서 축사에서 할빈시조선민족사업촉진회 박대수 회장은 “지난 한해 동안 상급 주관부문의 정확한 령도와 성심 각 조선족 단위, 단체, 기업을 비롯한 각계의 참여로 조선족사회는 안정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지고 각 민족의 교류를 강화하는 것은 새시대 민족업무의 주선이자 우리가 공동으로 완성해나갈 사명이다. 앞으로도 공동번영, 단결분투, 사회조화의 취지하에 각 항 업무를 추진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 첫 순으로 할빈시 조선족사회 10대 뉴스를 발표하고 뉴스 관련 단위와 개인, 그리고 기자들에게 증서를 발급했다.

10대 뉴스는 시간 순으로 ‘할빈한국인상회 안중근의사 순국 114주기 추모행사’, ‘할빈시 조선족 제 35회 한국 중소벤처기업 흑룡강 주간행사 개최’, ‘하남된 마음, 꿈을

향한 비전 펼쳐가는 할빈시도리구조선족학교’, ‘정학철 할빈시조선족로년문화협회 신입 회장으로 당선’, ‘오상시 조선족 군중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5주년 경축 문예공연 개최’, ‘오상조중 새 교수청사 락성식 개최’, ‘2024 한국 중소벤처기업 흑룡강 주간행사 개최’, ‘할빈시 민족학교 어문교수 수

준 제고의 선출’, ‘동북항일련군 전사 리민녀사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 ‘매체의 선두적 역할을 잘 발휘하고 있는 흑룡강신문’이 선정되었다.

10대 뉴스 선정 행사는 지난 한해 할빈시 조선족사회의 움직임을 회고하고 긍정에너지를 전파하는 장이자 교류, 소통, 선전, 표창 등 형식으로 향후의 민족업무를 더 잘 추진하기 위한 계기이기도 했다.

이어 할빈시조선민족예술관, 할빈시조선족부녀련합회, 할빈시조선족제1중학교, 조선족이라크무용단 등 단체들이 앞섬 들어 마련한 정채로운 공연은 이번 행사를 절정으로 끌어올렸다.

한편, 할빈시조선민족사업촉진회는 할빈시민족종교사무국과 할빈시민정국이 부탁한 각 사업을 열심히 관찰하면서 6월 할빈시 제 35회 조선족운동회, 11월 ‘리민동지 탄신 100주년 기념 생애사적보고회’ 등 굵직한 행사들을 주최해왔다.

/흑룡강신문

2024년 ‘전기산해첩’ 대련시조선족바드민톤대회 개최

12월 7일, 일년에 한번씩 열리는 대련시조선족바드민톤대회가 대련시조선족문화예술관의 지도와 전기산해의 후원으로 대련전수시민스포츠센터에서 열렸다. 대련지역의 조선족바드민톤 애호가 185명이 참가하여 남자 복식, 여자 복식, 혼합 복식 등 세 종목의 경기를 펼쳤다.

대련시조선족바드민톤협회 최룡철 회장은 개막식 축사에서 스포츠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참가자에 ‘우의 1위, 경기 2위’의 자세로 경기에 임할 것을 독려했다.

이어 총심판장인 정영철 명예회장이 경기 규칙과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김영현선수가 선수 대표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상대방을 존중할 것”을 약속해 선포했다.

참가 선수들은 간단한 워밍업을 마

친 후 경기에 뛰어들었다. 선수들은 경기에서 너도나도 뛰어난 기술과 강한 투지를 보여주었는데 하루 동안의 열전 끝에 대회 각 종목 우승자가 탄생했다.

대회 마지막으로 각 종목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에 이어 조선족 바드민톤 사업을 위해 기여를 아끼지 않은 애심인사들에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경기는 단지 조선족 체육인들의 성대한 모임일 뿐만 아니라 문화교류의 장으로서 대련시 조선족들의 응집력을 증진시켰다. 참가자들은 앞으로 이러한 대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대련 조선족 체육사업의 발전과 민족단결진보를 추진하는 데 더욱 큰 기여를 하기를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사회각계 애심인사들은 자금 협찬뿐만 아니라 스포츠 복장, 점심 도시락 등 물자를 기증함으로써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힘썼다.

/로녕신문

무순시장백정예술단 창단 8주년 경축

11월 29일, 무순시장백정예술단 창단 8주년 경축 및 송년 문예공연이 무순장백정예술단양성기지에서 진행되었다.

료녕성조선족련의회 리홍광 회장을 비롯하여 심양시, 무순시 조선족 사회단체 관계자와 예술단 팀원 등 약 100여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공연에 앞서 남인선 장백정예술단 단장은 “우리는 줄곧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관객들에게 다채로운 창작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 노력했다. 올해에는 다성부, 성악부, 기악부 교수에 중시를 돌려 전면적인 제고를 가져왔다. 단원들의 노력과 헌신, 관객들의 애정에 감사드리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더욱 다채로운 무대로 관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짐했다.

남씨 세 자매의 삼중창 〈아리랑〉으로 힘차게 막을 연 공연은 무용, 소합창, 독창, 시랑송, 밴드 연주 등 다채로운 종목으로 공연장을 시종 박수소리로 가득채웠다. 공연자들은 무대 위에서, 관객들은 무대 아래에서 한데 어우러져 다 함께 예술단 창단 8주년을 경축했다.

2016년 8월에 정식으로 설립된 무순시장백정예술단은 현재 80여명의 조선족, 한족 단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남인선 단장의 인솔하에 민족문화예술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예술단 설립 이래 성, 시의 각종 문예공연과 활동에 190여차례 참가했으며 한어, 조선어, 영어 등 여러 언어를 아우르는 다양한 무대를 선사하며 사회각계의 호평을 받았고 여러차례 수상한 바 있다.

/로녕신문



연길전민건강체육중심 스케이트장 개장



육중심 스케이트장에 찾아들고 있다. 빠른 속도로 자유로이 활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틀비틀하면서 열심히 스케이트를 배우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모두들 빙상운동의 즐거움에 푹 빠져든 모습이다.

길림시 관광객 진결군은 빙상운동을 체험하기 위해 특별히 연길을 찾았다고 하면서 “짧았을 때는 감히 바라지도 못했던 일인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 그때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게 되었다. 빙상운동과 연길을 정말 좋아한다.”고 말했다.

연길전민건강체육중심 스케이트장은 면적이 2만 3,000평방미터에 달하고 2,000명이 동시에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의 야외 스케이트장이다. 올해 이 중심에서는 스케이트장을 위주로 계절 전민 체육경기를 개최하게 되며 스케이트, 얼음썰매, 카트 등 오락시설을 설치하여 시민과 관광객들로 하여금 빙상운동의 즐거움을 만끽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파기자 /사진 연길시당위 선전부

스키 초보자, 스키 타기 전 알아야 할 몇가지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각지 빙설러행이 성수기에 접어들었는데 일련의 빙설 새 항목과 새 놀이법이 많은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스키 초보자의 경우 어떻게 하면 스키를 즐기면서 부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의 유연성을 높이는 등 부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준비운동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스키장의 안전 수칙과 지침을 숙지하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스키 코스를 선택해야 한다. 초보자는 스키 코스가 북한인 초급자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는데 이러한 코스는 사람이 적고 난도가 낮으며 설질이 더 좋고 제어하기 쉽다.

■ 적합한 스키장비와 보호장비를 선택해야 한다

자신의 키와 몸무게에 알맞은 스키와 부츠를 선택하고 초보자는 다루기 쉬운 비교적 짧은 스키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헬멧, 무릎보호대, 엉덩이보호대, 손목보호대 등을 올바르게 착용하면 넘어졌을 때 심각한 부상으로 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 스키복은 보온성, 통기성, 방수성 이 세가지를 모두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장갑, 모자, 고글과 같은 장비도 완전히 준비해야 한다.

■ 과로를 피하고 제때에 체력을 보충해야 한다

스키는 체력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높은 스포츠로서 과로하면 근육과 반응 시간이 감소하여 부상 위험이 높아진다. 또한 일시적으로 면역을 감소시켜 감기, 동상 및 기타 질병에 더 취약하게 한다. 때문에 일단 피곤하면 제시간에 휴게소로 돌아가 휴식해야 한다.

■ 안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스키 티켓 부대보험은 대부분 공공책임보험으로 스키를 타다가 다치면 완전히 배상할 수 없다. 초보자는 인신안전과 장비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로써 의외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재산에 대한 ‘부상’을 크게 피할 수 있다.

/인민넷